

발효식품엑스포, 비대면 개최

이달부터 2달간 진행... 쿠팡 직매입 온라인 기획전 포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쿠팡은 전라북도 내 식품기업에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포함한 직매입 참가업체 온라인 기획전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다들사람들을 포함 총 20여개 신규 기업이 품평회 참석 이후 쿠팡 직매입 입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기획전은 쿠팡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등 쿠팡 직매입에 입찰한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흥원은 기획전 참여업체 발굴 및 기획전 전반의 기획을 쿠팡은 도내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기획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전 관측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전주에서 쿠팡 입점 품평회를 개최, 쿠팡 카테고리 별 브랜드 매니저들이 직접 참석해 입점 준비부터 마케팅,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업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쿠팡과의 온라인 기획전을 계기로 국내 상위유명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전라북도 상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유통사에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김홍수 원장은 "코로나시대 e-엑스포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라북도 제품의 우수성과 기획전 기간동안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개최되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www.iffc.or.kr)를 방문하면 도내 생산 제품들의 온라인 참관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진행중인 온라인 기획전을 바로 접속해 즐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거름·물 관리, 맛있는 김장 배추 비결

웃거름 15일 간격으로 3~4회, 물은 10아르 당 1일 200kg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8월 말~9월 초 아주심기한 뒤 생육 중기에 접어든 김장용 배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름 관리와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4일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9 영향으로 텃밭 등에 직접 김장 배추를 키우는 초보 농업인은 정확한 재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비료 주는 시기와 생리장애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배추는 98~96%가 수분으로 구성돼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이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토양이 건조하면 갈슘 결핍 등 생리장애 발생이 심해지고 구(알)가 작아져 상품성이 떨어진다. 아주심기 후 20~30일경은 경구가 시작돼 생육이 가장 왕성한 때로 10아르(a)당 1일 200kg 이상의 물을 흡수한다. 따라서 관수시설이나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 등을 이용해 물이 토양 속까지 침투되도록 충분히 준다.

갈슘 0.3%액물 20L당 연화갈슘 60g)을 2~3회 물에 뿌려준다. 배추 인이 갈색으로 변하는 등 붓소 결핍이 우려되면 결구 초기 붓산 0.2%액(물 20L당 붓산 40g)을 2~3회 물에 뿌려준다.

마지막으로 배추줄기갈, 배추흰나방, 벼룩잎벌레, 진딧물 등이 발생해 어린 배추잎을 갉아먹거나 즙액을 빨아 먹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충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편 가을 배추 생산 동향을 보면 배추 주산지의 가을 배추 아주심기는 완료됐지만, 일부는 가을 잠비로 아주심기가 늦어지고 있다. 아주심기 지연으로 모종이 노화된 때는 잎에 직접 비료를 주는 등 조기에 생육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배추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름과 물 관리만 충분히 신경 쓰면 초보 농업인도 품질 좋은 김장 배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이달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접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이달 1일부터 신협 체크카드를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이하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개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만 원이다(총 20만 원 한도).

신협체크카드 소비지원금은 신협홈페이지와 모바일 ON뱅크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 신분증·체크카드 지참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전은 '텀블러 Boom-up' 캠페인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 11월 월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일 때,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원금이다. 이때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한 값이다(실적 제외의 업종 사용액 제외).

지금 받은 소비지원금(캐쉬백)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아울러 사용 및 전월 실적에 따른 캐쉬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충전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된다. 소비지원금 사용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8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새만금 웰린지오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부 약 81.322m2 용지에 관광숙박 시설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동 공연장, 애견호텔,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중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사업부 개발을 시작으로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사로 조성될 것이다"면서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완주 이서 양우내안팎 퍼스트힐 '주목'

교통·교육에 생활까지... 주거환경 '우수'

혁신도시·만성지구 등 지역 연계성 뛰어난

최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두 도시의 양쪽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일명 '더블생활권'을 갖춘 분양단지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월 초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분양할 예정인 '완주이서 양우내안'에 퍼스트힐' 또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두 군데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을 갖춘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완주 이서면에서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까지 차로 10~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에 마련된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블 생활권은 행정구역상 나뉘어져 있지만 경제지점이나 입찰자에 위치해 접근에 불편함 없이 두 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으로 조성된 상업지구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며 가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종 공원과 우리노인전문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가성비가 좋은 것은 물론 지역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인기다"라며 "완주이서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은 전주혁신도시와 만성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들 두 도시에 잘 조성돼 있는 생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다 규제지역인 전주와 달리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이서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은 인근 복합타운 개발과 이서 재개발(모포장)이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특히 약 20만㎡ 면적의 도유자인 이서모포장은 개

발을 앞두고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으로, 일대는 향후 전북 내 새로운 혁신 성장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이 단지는 전주와 완주군을 잇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서전주 IC가 인접해 있고 공주팔퀴로와 호남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주, 김제시 등 인근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으로 전주 생활권도 빠르게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완주이서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은 비규제지역인 전북 완주군에 들어서는 만큼 전매제한, 대출, 청약 등의 규제에서 유리하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지역·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재담청 제한이 없으며, 중도금대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도 적다.

한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완주이서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은 지하 1층~지상 15층, 10개동 총 400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218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이 단지의 견본주택은 전주 완산구 공주팔퀴로 1638에 마련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관련 회의 모습.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청년연합회 임원진들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과의 열린 대화'를 진행했다.

인도서 전북 우수화장품 120만불 수출계약 건인

경진원, 설명회 개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가 전북 우수 화장품 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필두로 도내브랜드가 한국 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참여업체는 실시간 중계방송에 참여하며 현지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현웅 원장은 "도내업체브랜드가 한국 대표브랜드가 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본 사업과 같이 도내업체와 현지 바이어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거점센터는 이후 진행된 관심바이어와 참여업체의 온라인상담회 33건을 지원해 280만불의 상담액, 120만불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또한 KOREA24Shop(B2B 온라인사이트)에 참여업체 제품을 업로드하며 샘플 증정 이벤트를 통해 도내 화장품 브랜드(비케이뷰티 등 10개사)를 소개하고, "K-BEAUTY"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지 대표인사인 ANI(South Asia's Leading Multimedia News Agency)의 4개사에 보도돼, 참여업체 브랜드와 거점센터의 역할을 현지에 알릴 수 있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28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삼,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2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000여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8개 업소(가정표지 15, 미표지 13)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은 배추김치가 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가공품 8건(28.6%), 축산물 7건(25.0%), 기타 4

건(14.3%)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9 상황을 고려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5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한 것과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